

##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21:1-16)

우리는 로마 앞에 서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모든 것이 다 되도록 만들어졌다. 원죄를 당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이다. 그 말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면 정복하는 인생이 된다. 원인은 원죄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세가지를 약속하셨다. 첫째는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뱀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눈에 들어와야 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약속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다. 인자의 아들이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겠다고 하신 것이다.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저주의 원인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다.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24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다. 이 약속 세가지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요 19:30절에 다 이루셨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뱀의 머리는 깨졌다. 우리에게 온 저주는 다 끝났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깊이 누리면 증거가 계속 나타난다. 그리고 증인되어서 제자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237, 치유, 서밋 여기서 다 나왔다.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그것 뿐 아니라 이것이 근본이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이 약속대로 하시는 것이다. 사단 무너진다. 이 언약 있으면 사단 무너진다. 사단 무너지면 정복하게 된다.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이다. 문제 와도 필요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4시간 하나님을 누릴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약속이다. 한번 더 묵상하고 언약 되기 바란다. 묵상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된다. 이 때 내 인생이 망대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돌아올 망대가 되는 것이다.

### 1. 하나님의 계획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기 전에 전도자가 눈여겨 볼 것이 있다. 가는 곳마다 제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다. 5절을 한번 보면 참 마음 뜨거운 장면이다. 사도바울 일행이 떠나는데 제자들 가족이 다 나왔다. 그리고 배타고 가야 되니까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꿇고 기도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 전도, 조직 전도,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는 전도이다. 전도자는 이런 단어에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전도를 정복하는 것이다. 미국에 놀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다. 남미 선교를 끝까지 정복해야 한다. 제자를 통하여 조직이 형성되면 누리는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다. 눈 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노력으로 하려면 힘이 들지만 눈만 열리면 되기 때문에 기도로 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 바

란다. 모든 것을 정복하라. 내가 놀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모든 인간을 다 누릴수 있어야 한다. 돈에 놀리는거 없어야 한다. 전도선교에도 놀리는 것이 아니다. 정복이고 누림이고 감사이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바뀌지 않고 반드시 되어진단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다. 개인 뿐 아니라 나라와 시대에도 그랬다. 가나안 간다고 먼저 말씀 주셨다. 오늘 바울에게도 먼저 말씀하셨다. 너는 이방인전도해라. 그리고 그걸 성취하셨다. 유대인도 있고 왕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이방인들이었다.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가서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다 가지 말라고 했다. 가면 잡히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을 다르게 했다. 나는 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바울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사도행전 20: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사도바울이 딱 성령에 매였다. 성령이 주신 어느 생각에 잡힌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해도 그럴수가 없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사도바울은 가면 잡힌다는 말이 성령님의 말씀을 인정했다. 그러나 나는 간다는 것이다. 24절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내가 달려갈길과 내가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는데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것이다. 어떻게 되든 복음에 증거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나는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가서 죄수로 잡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죄수로 잡혀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죄수로 잡혀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에게 해고지를 못했다. 셋집에 있을때에도 죄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있을때도 군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못 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완벽한 안전한 길이었다. 그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수 있는 길이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완전한 성령의 인도였다. 사람들이 가면 잡힌다고 할 때 흑흔 들릴수 있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 성령에 매여, 우리도 언약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된다. 내 생각이 언약에 꽂혀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 없다. 언약에 꽂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흔들린다. 때로는 뒤집어 진다. 육신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잡히는데 왜 가는가? 그러면 축복을 놓치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 로마,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림을 받는 사도바울에게 배울것이 많다. 그리고 사도바울과 같은 인생이 된다면 더 바랄것이 무엇인가 할 정도이다.

사도바울을 이렇게 만든 두가지를 우리도 잡으면 된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는 것이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서 인생 뒤집어졌다. 두 번째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다. 그것은 그의 사명이었다. 개인의 언약이었다. 그리고 평생 메시지였다. 이 두가지에서 사도바울의 모든 것이 다 나왔다. 세계 복음화도 여기서 나왔다. 사도바울의 전

도가 로마복음화였다. 수많은 제자가 여기서 나왔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세계도 여기서 나왔다. 그는 표현했다. 무궁무진한 그리스도. 봤다는 것이다. 이 눈이 이 두가지에서 나왔다. 그 언약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깨달음, 진짜 그리스도이다. 그 어느 사도보다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 하였다. 우리도 이 두가지 있으면 사도바울처럼 된다. 크든 작든 사도바울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기 바란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인생 메시지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렘넌트 7명 다 이랬다. 요셉은 이미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언약 안에서 꿈을 받았다. 모세도 어머니로부터 창세기 이야기 싹 들었다. 모세가 창세기 썼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가나안 딱 받았다.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방인 딱 줬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 2. 영적인 이유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잡히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리라는 것은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나온다. 그리고 각 성에 가는 곳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그래도 사도바울은 거기에 잡히지 않았다. 그들의 예언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잡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잡히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가 마는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잡힌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었다. 물론 성령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다.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한 것이다. 성령님은 잡힌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한 예언은 사실이었지만 사도바울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었다. 자꾸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가지 말라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그 위의 것, 영적인 이유를 잡았다. 그래서 그는 잡히는 것에 신경쓰지 않았다. 잡힐수도 있고 죽을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분명한 것은 여하튼 간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다. 그래서 올라갔다. 죽음을 넘어선 영적인 것이 이유가 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성공했다. 우리의 실제 삶속에서도 누릴 중요한 원리중의 하나이다. 영적인 이유를 봐야 한다. 안될 것 같다. 어려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이유이다. 육신적 이유를 따라가면 죽는다. 요한복음 6:33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다. 육은 유익하지만 살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영적인 이유를 따라간 사람은 결국 산다. 안될줄 알았는데 아주 대성공하는 길이었다. 완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길, 가서 잡히는 것이었다. 영적인 이유를 따라가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이다. 늘 듣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이다.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결론중 하나이다. 결국 사도바울이 옳았다는 것이다. 예언한다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옳았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 그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선택의 이유와 차원이 달랐다.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이었고 사도바울은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 중요한 이야기이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도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의 중요한 원리이다. 결국 그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를 갔다. 가는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였다. 감옥안에서도 마음껏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운동 할수 있었다. 그 때 더 큰 전도가 일어났다고 했다. 감옥안에 앉아 있을 때 더 큰 제자 일어났다고 했다. 우리도 이 전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자를 일으켜서 보내는 것이다. 100팀 100지교회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적 전도이다. 사도바울의 전도를 남미에 심고 싶다, 사도바울의 전도를 미국에 한다는 말이다. 정복할수 있다. 우리는 이런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믿는다.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기 바란다. 하나님 나도 여기에 한 제자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사도바울의 이런 것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있었다. 빌립보에서 귀신들린 여종을 고친후 큰 소동이 일어나 결국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만일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안 들어간다. 죄가 정해지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행위를 할수 없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내놨다. 그래서 감옥에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였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를 살렸다.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로마 시민권 내놨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다. 큰 위법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인가? 내게 연결된 사람 해꼬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때에도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받았다. 그래서 가만히 되어지는대로 말긴 것이다. 영적인 이유를 따라가면 아주 중요한 사도바울의 예이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따라갔다. 노아는 언약의 피제사를 따라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일한 응답 방주를 받았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방주를 모른다.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단을 쌓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롯에게는 단 한번도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다. 쌓았는데, 기록만 없는지는 모르겠다. 여하튼 아브라함에게는 있는데 롯은 없다. 기록이.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지금까지 좋은 땅 선택해서 모은 재산 다 불타서 없어졌다. 아내는 소금기둥 되었다. 자식을 두 딸을 통해서 낳다. 그게 모압과 암몬이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드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롯은 구원받았다. 많은 메시지가 있다. 롯은 믿는데 그것을 안한 것이다. 하나님이 많이 하라는게 아니다. 단을 쌓는 행위를 아브라함은 했고 롯은 안했다. 그런데 믿는다. 그 믿는 사람이었다. 베드로전서 1:7절에 믿는 사람이었다. 구원받고 천국갔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런데 땅에 것으로 증인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증인이 되었다. 주위 왕이 와서 조약을 맺었다. 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지만 롯은 아무것도 없었다. 만일 롯이 이 증거로 6명만 전도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도를 못한다. 자기가 믿는 그 언약이 답이라는 것을 몰라 전도를 하지 못한 것이다. 소돔 고모라에는 비참한 인생 사는 사람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 저주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이것이 답이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면 6명 전도 못했겠는가? 그런데 롯에게는 그 언약이 답이 아니었다. 그냥 믿고 끝났다. 아브라함은 자기 식솔이 천명이라고 해석한다. 언약을 고백하는 행위를 하니깐. 아주 중요하고 인생이 완전 뒤집힐수 있다. 우리도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정복하는 인생되기 바란다. 그래서 미국 남미 237의 확실한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 언약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정복하게 하신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란다.